

“무한경쟁시대, 도약의 핵심 키워드는 리더십 혁신”

윤세영 SBS미디어그룹 회장이 5년 만에 SBS미디어홀딩스의 등기이사 겸 이사회 의장에 복귀했다. 윤석민 SBS미디어홀딩스 부회장은 SBS 및 SBS콘텐츠허브의 등기이사 겸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됐다.

SBS미디어홀딩스는 3월 24일(목)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창업주인 윤세영 회장을 SBS미디어홀딩스 등기이사 겸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 SBS와 SBS콘텐츠허브는 3월 25일(금)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대주주인 윤석민 부회장을 SBS 및 SBS콘텐츠허

브의 등기이사 겸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 이는 미디어 무한경쟁 시대에 그룹의 경쟁력을 높이고 책임경영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윤세영 회장은 취임사에서 “책임 경영을 바탕으로 리더십의 혁신을 이뤄 그룹의 변화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민 부회장은 SBS 이사회 의장 취임사에서 “대주주가 무한 책임을 지고 과감한 경영을 통해 SBS가 문화콘텐츠기업으로 거듭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윤세영 SBS미디어홀딩스 이사회 의장 취임사

경영 최종 책임은 제가 질 것.. 임직원은 자기 분야 최고의 전문가 돼주길



로그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임직원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온라인 매체가 미디어 시장을 호령하고, 모바일이 TV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재벌과 해외 자본이 제작분야 생태계를 휘젓는 가운데 지상파는 여전히 구시대의 각종 규제에 묶인 채 절름발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거대 통신사들까지 방송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지상파가 이렇게 생업의 기초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여, 저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언론사도, 방송사도 기업입니다. 끊임없이 수익을 내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에서 생존과 발전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최고의 결기구는 이사회입니다. 저는 명령하고 군림하기 위해 이사회에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회사가 처한 국면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창업주로서, 최고경영자로서 변화를 선도하고 책임을 지기 위해 이사회 의장을 맡은 것입니다. 그리고 의장 취임에 즈음하여 저의 인식을 여러분 모두와 공유하고자 합니다.

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리더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도달할 방법을 찾고 실제 노를 저어 배가 순항하게 만드는 전 과정에는 여러 단계의 역할 분담이 중요합니다. 배가 잘 못 간다고 선장이 노를 젓는다면 그 배는 방향을 잃고 침몰하고 맙니다. 선장에겐 선장의 임무가 있고 선원들에게는 각자의 임무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위치에 꼭 필요한 일을 제대로 해야만 배가 목표를 향해 순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선장에게 귀결되지만 선장 한 사람만이 리더가 아닙니다. 기업에서 회장, 부회장, 사장, 본부장, 국장, 팀장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리더입니다.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변화하고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때 조직이 살아 숨 쉬고 안팎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SBS가 처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리더십의 혁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주력하고자 하는 것도 리더십의 혁신입니다. 갑질에 익숙해 있던 리더십을 올의 자세로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전문 분야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리더십의 근본은 같습니다. 리더는 인재를 발굴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리더는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는 아이디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리더는 난관을 돌파하는 해결사가 되어야 합니다.

훌륭한 리더십은 개인의 역량이자 조직의 근간이기도 합니다. 리더십은 갈고뎛어야 갖출 수 있는 고도의 능력인 동시에, 선배가 후배에게 가르쳐야 하는 중요한 덕목인 것입니다.

이러한 리더십이 SBS에 살아 있는가? 저부터 반성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 창사 25주년을 맞아 재창업을 선언하고 1등 방송의 가치를 내걸면서 회장인 저부터 변화하겠다는 결심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SBS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은 지 5년 만에 SBS미디어홀딩스 이사회 의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개가 무겁고 만감이 교차합니다.

SBS의 역사는 끊임없는 도전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젊은 패기로 방송의 모든 분야에서 변화를 선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도전의 정신과 혁신의 패기는 퇴색하고 적당주의가 만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상파 3사가 온실 속에서 안락하게 시장을 분할하던 시대는 이미 끝난 지 오래입니다. 앞서가는 뉴스, 훌륭한 프

비즈니스란, 거친 바다에서 설 새 없이 노를 저어 고객을 찾아가는 끊임없는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SBS는 창사 초기, 힘든 싸움을 모두 이겨내며 곳곳이 자리를 잡았지만 지금 우리는 25년 전보다 훨씬 더 거친 파도와 폭풍우 속에서 험한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1등을, 최고를 목표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잠시라도 노 젓기를 멈추면 침몰하거나 난파되고 맙니다. 열심히 노를 저어도 방향이 틀리면 표류하고 맙니다.

경영이란, 조직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

모든 임직원은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 최고의 스페셜리스트가 됩시다. 저는 25년간 방송사를 경영해왔지만 스페셜리스트는 아닙니다. 제너럴리스트입니다. 제너럴리스트와 스페셜리스트는 아주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최고의 인재를 발탁하는 데 힘을 쏟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분야의 권한을 위임할 것입니다.

저는 SBS그룹 경영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제너럴리스트로서, 큰 그림을 그리고 전체를 이끌어 가는데

집중할 것입니다. 사장 이하 스페셜리스트의 분야는 스페셜리스트에게 맡긴다는 것이 저의 경영 원칙입니다. 본부장, 국장이 결정할 일을 회장이 정해주겠다고 일일이 간섭하면 오히려 일을 망치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저는 제너럴리스트로서 경영의 최종 책임을 지고자 SBS그룹 지주회사의 이사회 의장에 취임하는 것입니다. 스페셜리스트인 임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분야에서 훨훨 날 수 있도록 그룹의 틀을 다시 살피겠습니다.

적재적소에 1등 전문가를 앉히고 해당분야에 전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것입니다. 스페셜리스트가 책임지

는 사안에 시시콜콜 잔소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신상필벌을 명확히 할 것입니다.

3월초에 S-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S-위원회와 산하의 S-TF는 SBS가 진정 바뀌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찾아내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윗사람은 변하지 않으면서 변하라고 지시만 하는, 그런 변화가 아닙니다. S-위원회는 직원들의 진솔한 목소리와 지혜를 모아 변화의 방향을 아래에서부터 찾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변화의 실천이 위에서부터 이뤄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간부부터 타성에서 벗어나 혁신을 해야 합니다. 회장인 저부터 변할

것입니다. 혁신의 바람이 위에서 아래로 퍼져나갈 때 조직의 환골탈태가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직원 개개인의 역량을 최고로 끌어올립니다. 회사의 발전이 개인의 발전이고 개인의 발전이 회사의 발전이라고 제가 강조해온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SBS그룹 전체가 권한과 책임이 분명한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회장부터 팀장까지 모든 리더가 노력합니다. 동지애를 가지고 하나로 뭉쳐 나아갑시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1등 방송을 달성합니다. SBS 미디어홀딩스 이사회 의장으로서 저부터 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석민 SBS 이사회 의장 취임사

방송의 자율성 · 독립성 보장...노사 하나 돼 '1등 문화콘텐츠 기업'으로!



매우 어려우며, 생존전략을 위한 과감하고 신속한 의사결정과 책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주주의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대주주로서 본인의 등기이사 등재와 이사회 의장 취임은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책임경영을 다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내 기업들의 경우 회사 경영에 수반되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대주주의 등기이사 등재 비율이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SBS 대주주는 회사경영에 따른 대주주로서의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본인이 이사회 의장으로 취임하더라도, 2004년 2월 SBS 윤세영 회장께서 선언("방송전문경영인 출신 가운데 대표이사 사장을 선출하는 전문경영인 시대를 열겠다", "대주주는 상법과 관련 법규에서 부여한 권한에 따라 이사회를 중심으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하신 것처럼 SBS 경영진의 권한과 책임에는 변함이 없으며, 방송전문 경영인 제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그 선언의 철학과 정신을 계승할 것입니다.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는 역할을 분명하게 분리하여 각자 책임과 권한을

갖고 회사를 경영합니다. 즉, 총괄대표이사과 제작대표이사는 방송제작, 편성, 보도 등 일상적인 방송활동과 경영활동을 책임지고,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의 멤버로서 법령 및 사규에 따라 이사회가 행하는 중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것이며,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와 본부장들을 중심으로 경쟁력 확보,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한 새롭고 혁신적인 경영행위를 수행할 것입니다.

지난 연말 공동대표이사 체제를 도입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앞으로 SBS는 두 분의 공동대표가 각 분야에서 예산권, 인사권 등의 권한과 책임을 갖고 전문역량을 발휘하게 되면서 과거의 단독 대표이사 체제보다 방송전문 경영인 제도가 더욱 강화된 것입니다.

SBS 임직원 여러분,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지상파 방송 SBS의 근본가치

로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방송의 독립성은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광고주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수년 전부터 이러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류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목표는 바로 '시청자', '수용자'입니다. 시청자들이 원하는 콘텐츠, 시청자들이 원하는 뉴스를 제공함으로써 외부의 부당한 압력과 간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근본가치를 지키는 첩경이라고 확신합니다.

본인이 이사회 의장에 취임하더라도 지상파 방송의 핵심가치인 '방송의 독립성'과 '뉴스의 공정성'은 존중할 것이며, 이를 위해 편성, 보도, 제작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입니다.

이미, SBS는 노사합의로 보도, 편성, 제작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 마련돼 있고, 그 효용성에 대해서는 공영방송 못잖게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예를 들면, 방송의 독립성 확보를 근간으로 하는 편성규약과 노사 동수의 전체 편성위원회, 보도 등 본부별 편성위원회, 본부장 중간 평가제, 팀장이상 보직간부들에 대한 상향평가제, 노동조합 추천인사가 참여하는 시청자위원회 등 견제와 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돼 잘 시행되고 있습니다.

SBS 가족 여러분, 최강자만이 생존하는 무한경쟁 시장에서 1등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해야 하는 SBS에서는 노사의 생각과 운명이 다르지 않습니다.

아날로그 독과점시대에는 소유·경영의 분리라는 가치를 존중해 대주주는 주주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제한적으로 수행해 왔지만, 이제는 대주주를 포함한 경영진과 모든 직원이 일체감을 갖고 경쟁력과 수익성 강화에 매진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시점이면서도 절박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노사화합과 상생'이라는 일체감 속에서 책임 있는 오너십과 구성원들의 열정이 함께 한다면 '일등 방송', '일등 문화콘텐츠기업' SBS는 머지않아 실현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SBS 임직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해 11월 창사 25주년을 넘어 새로운 재창업의 시대를 선언했고, 임직원 모두가 '1등 방송'의 목표 실현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을 하고자 하는 열정과 패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명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과거 미디어 독과점시대에는 방송의 공적 책임이 최우선 가치였다면, 1등만이 생존하는 다매체 다채널/온라인 모바일의 무한경쟁 시대에는 SBS의 생존과 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최근의 미디어환경은 SBS 경영진에게 방송제작과 광고판매라는 전통적 경영 활동을 위한 의사결정뿐 아니라 글로벌 제작, 신규사업, 타 미디어사업자와의 전략적 제휴나 M&A 등 매우 중대한 의사결정을 수시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의사결정은 전문경영인이 단독으로 내리기

러브FM, 청취율 1위 목표로 메인 시간대 전면 물갈이

3월 28일 라디오 봄 개편... 온·오프라인 넘나들며 청취자 인기 끌어 모은다



SBS 라디오가 3월 28일(월)부터 대대적인 봄 개편에 들어갔다. 특히 러브FM의 개편 폭이 커 5개 프로그램이 새로 시작됐다. 오전 11시~오후 6시 메인 시간대에는 남희석, 윤희빈·양세형, 봄, 김홍국·봉만대 등 입담 좋은 DJ들이 대거 영입됐다.

3월 21일(월)에 열린 개편 기자간담회에서 김영우 라디오편성기획팀장은 “이번 개편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편(fun) & 팟(pod)’이다. 지난 가을 개편이 모바일 라디오로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과정이었다면, 이번 개편은 여기에 재미 요소를 더했다. 이것이 ‘말발’하면 빼놓을 수 없는 입담꾼들을 DJ로 영입한 배경”이라면서 “새로운 DJ들과 1년 안에 청취율 1위를 달성하겠다”고 공언했다.

오전 11시부터 한 시간 동안 방송되는 <남희석의 사이드>는 제목처럼 속이 뽕 풀리는 청취자 1:1 맞춤 상담 쇼다. 개그맨 남희석이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청취자들의 고민을 명쾌하고 유쾌하게 해결해준다. 남희석

은 “동시간대 청취율 1위가 목표”라고 밝혔다.

오후 12시 20분부터 2시까지 방송되는 예능 버라이어티 <투맨쇼>는 방청객과 함께 하는 오픈 스튜디오 프로그램으로, ‘보는 라디오’, 유튜브, 팟캐스트 등 뉴미디어를 적극 활용해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나른한 오후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진행을 맡은 개그맨 윤희빈, 양세형은 제2의 <컬투쇼>가 되겠다는 야망을 숨기지 않는다.

2시 20분부터 4시까지 방송되는 <DJ 봄의 드라이빙 클럽>은 틀에 맞춘 형식을 탈피하여 90년대~2000년대 댄스 음악으로 청취자의 자동차를 클럽으로 탈바꿈시킨다.

오후 4시 5분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 <김홍국, 봉만대의 털어야 산다>는 본격 토크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으로, 어록제조기 김홍국과 예로지장 봉만대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수위를 넘나들며 화끈하게 툰다.

일요일 오전 11시에 방송되는 <장현규가 만난 사람>에서는 장현규 논설위원실장이 화제의 인물과 품격 있는 시

사대담을 나눈다.

<이숙영의 러브FM>은 70분 늘어나 오전 8시 5분부터 11시까지 방송되며, <안지환, 김지선의 세상을 만나자>, <노사연, 이성미 쇼>, <헬로우 미스터 록기>, <스위트 뮤직박스>는 폐지됐다.

파워FM은 2개의 프로그램이 신설됐다.

매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배성재의 텐>은 라디오 최초로 젊은 남성을 타깃으로 한다. 연애, 직장생활, 걸그룹, 스포츠, 군대 등 남성들의 관심사를 주제로 남심을 저격한다는 전략이다. 다음 팟플레이어 생중계 등 멀티동영상서비스도 도입해 뉴미디어에 민감한 청취자와 소통을 강화한다.

<파워 스테이지 더 라이브>를 진행하던 정엽은 시간대를 바꿔 <정엽의 뮤직하이>로 매일 새벽 1시에 청취자를 만난다.

<파워 스테이지 더 라이브>, <배성재의 주말 유나이티드>, <고릴라 캐스트>는 폐지됐다.

지상파 3사 월화드라마 대첩! <대박> 연속 두 자릿수 선두 질주

놀라운 소재 · 스토리 · 연기력 · 연출력에 재미까지...호평 봇물



지상파 3사가 치열하게 격돌했던 월화드라마 대전에서 또 한 번 SBS가 승기를 잡았다.

않았던 것을 생각할 때 매우 고무적이다. <육룡이 나르샤>에 이어 또 사극이 배치됐건만 식상함은

3월 28일(월) 첫 방송된 <대박>이 13%(닐슨코리아/수도권)의 시청률을 기록, KBS2 <동네 변호사 조들호> 11%, MBC <몬스타> 7.8%를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3월 29일(화)에는 13.7%로 상승, 연속 두 자릿수 시청률로 1위를 유지했다. 이는 3사가 새로운 월화드라마로 승부수를 띄웠던 작년 10월 5일(월), <육룡이 나르샤>가 1위를 차지한 뒤 50부작 최종회까지 그 자리를 내주지

않았던 <육룡이 나르샤>와 닮은 듯 다른 듯한 느낌은 두 작품을 비교하면서 보는 재미까지 선사했다. <대박>은 시작부터 압도적인 스케일과 수려한 자연 풍광으로 시선을 사로잡았고 독특한 화면 질감과 색감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전광렬, 최민수의 아우라는 첫 등장부터 강렬했고, 눈빛이 살아있는 장근석, 제몹을 200% 발휘하는 이문식, 윤지혜, 윤진서, 송중호 등 조연들의 활약은 눈부셨다.

감각적인 연출력도 한몫했다. 세련된 색감과 카메라 구도, 배우들의 감정선을 담아내는 연출법 등은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 했다.

첫 회가 끝나자 언론들은 “최민수, 연기가 미쳤다”, “아시아 프린스 장근석, 타짜로 거듭났다”, “괴물 사극의 출현”, “명품 배우들의 명연기로 휘몰아친 60분, 그야말로 ‘대박’” 등의 호평을 쏟아내며 또 하나의 명품 사극의 탄생을 알렸다.

목숨과 왕좌, 사랑을 놓고 벌이는 두 사내의 한판 승부를 그리는 <대박>은 매주 월, 화 밤 10시에 방송된다.

SBS뉴스, 네이버에서 전체 언론 중 댓글 1위

인터넷 여론을 파악하기에 가장 쉽고, 의미 있는 것 중 하나가 기사 댓글이다. 댓글의 숫자는 빅데이터로서 가치가 있고 뉴스의 화제성을 측정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심의팀에서 2월 1일(월)부터 3월 23일(수)까지 52일 동안 네이버 뉴스로 공급되는 언론사별 뉴스에 달린 댓글 개수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화제를 모으는 뉴스는 <SBS 8뉴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중 댓글수는 총 442,996개인데, SBS는 154,336개로 34.84%를 차지하며 1위를 했다. MBC는 13만여 개, JTBC는 7만 9천여 개 정도였다.

이슈가 된 뉴스라 볼 수 있는 1천 개 이상의 댓글이 달린 뉴스만 추려보면, 격차는 더 벌어진다. 같은 기간 270,751개의 댓글 중 SBS는 약 40%를 차지했다.(표 참조)

언론사	댓글 수	비율
SBS	107,472	39.69%
MBC	93,946	34.70%
JTBC	37,272	13.77%
KBS	32,061	11.84%
합	270,751	

이 기간 중 가장 많이 화제가 된 아이টে็ม은 이호건 기자의 '나랏돈 더 많이 쏜다'라는 경제 기사였는데, 조사 대상이 된 방송사 뉴스 중 가장 많은 5,833개의 댓글이 달렸다. 4사 전체 기사 중 5,794개의 댓글이 달리며 두 번째로 많은 화제가 된 아이টে็ม도, SBS의 '취업했어요. 매일 거짓 출근'(정혜진 기자)이 차지했다. 누리꾼들은 여성의 날 아이টে็ม이었던 박수진 기자의 '기동취재'에도 많은 댓글을 달며 공감을 표시했다.



3/8 - 기동취재 박수진 기자
 댓글 kjj1**** 우리회사도 저래요우리회사 애긴줄ㅋㅋㅋㅋ 어휴말하고싶다..... 대나무 숲가서 말해야 하나 봄.....

누리꾼의 이목을 집중 시킨, 댓글 1천 개 이상인 뉴스도 SBS가 52개로 가장 많았는데 타사의 경우 안보, 사건 사고 등 특정 아이টে็ม에 편중된 반면, <SBS 8뉴스> 아이টে็ม은 총선, 안보, 경제 문제, 갑질 문제, 정부 및 기업 고발, 화이트칼라 범죄, 사건 사고 등 다양한 영역에 골고루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동취재', '생생리포트' 등 공들인 기사에 누리꾼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그것이 알고 싶다> 한국PD대상 '올해의 PD상' 수상



왼쪽부터 도준우, 김종일, 장경주 PD

별관 공개홀에서 열렸으며 대상인 '올해의 PD상'은 현장에서 발표됐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상파 시사교양 프로그램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노력해온 점을 인정받았다. 제작진을 대표해 상을 받은 도준우 PD는 "〈그것이 알고 싶다〉가 1000회를 넘을 수 있었던 이유는 1000명의 제보자와 23년간 시청해 준 시청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제작진보다 더 분노하고 더 가슴 아파해주는 시청자를 생각하며 앞으로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제작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SBS스페셜> '쇼에게 세상을 묻다'(연출: 김종일)는 TV 교양정보 작품상을 수상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팀(박두선·정철원·안교진·안윤태·류영우·배정훈·도준우·장경주·강범석·주시평·최민철·용소연·최준호)이 한국PD연합회 주최 제28회 한국PD대상에서 '올해의 PD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3월 18일(금) 여의도 KBS

VR 콘텐츠 제작과 플랫폼 구축에 박차 가한다



SBS는 LG전자와 공동으로 3월 17일부터 5월말까지 'VR UCC 콘테스트'를 개최한다. 'VR UCC 콘테스트'는 VR 산업의 육성과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된 공모전으로, 일반인 누구나 VR로 제작한 모든 콘테츠를 편수 제한

없이 응모할 수 있다. 독창성, 창의성 등을 평가해 대상 1천만 원, 최우수상 3명 3백만 원, 우수상 5명에게 1백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한편, 아이디어는 있으나 VR 카메라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제작계획서가 채택된 100명에게 VR 촬영을 위한 전용카메라와 시청을 할 수 있는 VR HMD 세트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와는 별도로 SBS 사내 제작진과 VR 콘테츠 제작에 관심이 있는 사원들을 위해서 VR 카메라와 HMD 50세트가 제공될 예정이다.(문의: UHD추진팀) SBS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고품질의 VR 콘테츠 제작과 글로벌 유통플랫폼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국내 최대의 제조사, 이동통신사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VR 하드웨어와 플랫폼, 콘테츠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진출을 모색한다.

3월 17일(목)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관련 컨퍼런스에서 신경렬 기획본부장(사진)은 "VR 산업은 콘테츠를 중심으로 VR 하드웨어와 VR 영상플랫폼을 함께 성장시켜 생태계를 갖추고 글로벌 경쟁에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선 국내 VR 콘테츠 생산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이를 쉽게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디오머그' 조회수 추종 불허..방송 다시보기도 제쳐



[페이스북 '좋아요' 10만 돌파기념으로 새롭게 선보인 한글 로고

보도본부의 소셜 동영상뉴스인 '비디오머그'가 지난해 2월 출범 이후 1년 만에 가장 경쟁력 있는 콘테츠로 부상했다.

'비디오머그'가 생긴 이후 MBC는 '엠빅뉴스', KBS는 'KBS 멀티미디어뉴스'라는 이름으로 동영상뉴스 서비스에 들어갔지만, 페이스북 10만 '좋아요'를 기록한 '비디오머그'에 비해 MBC 4만 5천 명, KBS 3천3백 명 수준으로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YTN과 조선일보 등 다른 언론사들도 '비디오머그'의 성공을 벤치마킹해 뒤따라오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특히 '비디오머그'는 지상파로 송출하지 않는 모바일 콘테츠임에도 포털인 다음에서 SBS 전체 프로그램 중 석 달 연속 1위의 조회수를 기록한 것은 물론



[3월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수상한 비디오머그 콘테츠

지난달까지 다음TV팟에서만 총 조회수 약 2천8백47만을 기록, 2위인 '프리미어 12' (1천8백9만) 3위 '런닝맨' (1천5백67만) 등을 큰 차이로 앞서며 연간 조회수 1위를 차지했다.

기존 TV 프로그램 다시보기 위주로 큐레이션하는 네이버TV캐스트에서도 '비디오머그'는 한 해 동안 1천6백82만 조회수로 SBS 콘테츠 가운데 11위를 차지해, 지상파로 방송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크게 약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앞으로 SBS그룹의 콘테츠 개발 방향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